

막오른 데이터 선택 요금제... 소비자 반응 '글썸'

SK 가세 ... 이동 3사 출시

“할인 효과 적다” 문의 없어

영업사원·대리기사 혜택

“소비자들의 기대만큼 할인폭이 크지 않아서인지, 요금제 변경 문의가 많지 않네요.”

SK텔레콤이 19일 최저 2만원대(부가세 제외)의 요금에 유·무선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데이터 요금제를 본격적으로 내놓았다.

앞서 KT는 지난 7일 음성통화와 문자는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에 따라 요금을 택할 수 있게 한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며 요금제 개편을 주도했고, LG유플러스가 1주일 만에 비슷한 개념의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SK텔레콤도 가세한 것이다.

■이동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 비교

SK telecom			kt			LG U+		
월정액	음성	데이터	월정액	음성	데이터	월정액	음성	데이터
29.900	무제한	300MB	29.900	무제한	300MB	29.900	무제한	300MB
36.000	무제한	1.2GB	34.900	무제한	1GB	33.900	무제한	1GB
42.000	무제한	2.2GB	39.900	무제한	2GB	38.900	무제한	2GB
47.000	무제한	3.5GB	44.900	무제한	3GB		무제한	3GB
51.000	무제한	6.5GB	49.900	무제한	6GB	49.900	무제한	6GB
			54.900		8GB			
61.000		11GB	59.900	유무선 무제한	10GB	59.900		10GB
80.000		20GB	69.900		15GB	69.900		15GB
100.000		35GB	99.900		30GB	99.900		30GB

이동 3사의 데이터 중심(선택) 요금제는 휴대전화의 기본기능인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는 ‘데이터 모바일 시대’에 맞춰 요금제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의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들은 “데이터 선택 요금

제와 관련, 문의도 요금제 변경은 하루 서너건에 불과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동 3사 모두 2만9900원의 낮은 금액에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무제한 제공이라는 점을 앞세워 가입자 쟁탈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 사용량을 확대하면 기존 요금제와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KT의 경우 ‘순 완전무한51(LTE)’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매일 내는 요금은 부

가세를 포함 5만6100원이다. 이 요금제를 이용하면 유·무선망내의 통화 및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데이터는 매달 5GB가 제공된다. 이 소비자가 비슷한 금액대의 ‘LTE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를 사용하면 5만4890원(부가세 포함)을 내면서 무선 망내의 음성통화 및 문자 무제한, 매달 6GB의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데이터 요금제가 매달 12000원 가량 저렴하고, 1GB의 무료 데이터를 더 쓸 수 있지만 유선 통화 무제한 혜택은 제외된다.

결국 매달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 선택 요금제와의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 3만원대의 요금을 내며 매달 300분 가량의 무료통화를 제공받던 일부 소비자는 비슷한 가격에 무선 음성통화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음성통화가 많아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요금을 내던 영업사원과 대리기사, 콜센터 상담원, 주부, 중장년층 등은 혜택이 예상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20.85 (+7.13)
- ▲ 금리 (국고채 3년) 1.90% (+0.01)
- ▲ 코스닥 706.79 (+3.54)
- ▲ 환율 (USD) 1088.10원 (+2.50)



19일 광주은행 부평지점 개점식에서 김한 광주은행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최영 부평지점장 등이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서울 청담지점·인천 부평지점 개점

광주은행은 19일 김한 은행장과 임직원,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지점과 서울 청담지점 개점식을 잇따라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광주은행 부평지점과 청담지점은 지난 3월 2일 삼성동지점 개점 이래 서울에 각각 6번째와 7번째 개설된 전략점포로, 이날 2개 지점 개점으로 광주은행은 수도권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이날 개점한 부평지점을 통해 인천에 첫 발판을 내디뎠으며, 5명 정도가 근무하

는 이들 전략점포를 통해 수도권 영업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 은행장은 개점식에서 “광주은행 전략점포를 수도권에 배치해 이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도권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여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번 개점으로 서울에 총 11개의 점포망을 갖추게 됐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산구청에 무인로컬푸드매장

구청에 지역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열었다.

농협광주본부와 평동농협은 19일 광주 광산구청 1층 현관에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자치단체 건물에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연 것은 광산구청이 전국 최초다. 이 곳에서는 광산구 평동 지역에서 당일 생산한 방울토마토, 애호박, 오이, 가지 등 신선한 야채를 판매한다. 광산구와 평동농협은 무인 매장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투게더 광산구 나눔문화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일 광주 광산구청 1층 현관에 전국 최초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이 문을 연 가운데 공무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농협 광주지본부 제공>

오늘 ‘삼성증권 호남포럼’

제5회 삼성증권 호남포럼이 20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1부에서는 최윤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부장이 ‘하반기 국내 주식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는 김경일 삼성자산운용 VP가 ‘인도·아시아 등 신흥시장 투자전략’을 해설한다. 3부에서는 박상준 삼성증권 Wrap 운용팀 차장이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솔루션, POP UMA’에 대해 강연한다. 문의 062-380-1588. /김대성기자 bigkim@

보해 ‘앞새주부라더’ 한달만에 550만명 팔려 ‘대박’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신제품 ‘앞새주부라더’가 출시 한달만에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면서 주력 제품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19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출시한 ‘앞새주부라더’ 판매량이 하루 18만 병씩 약 550만병이 팔려나갔으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존 앞새주 판매량이 한달 평균 1200만 병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출시 한달만에 기

존 제품의 절반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셈이다. 보해양조측은 최근의 트렌드에 따라 앞새주부라더의 알코올 도수를 17.5도로 낮춰 소비층을 확대하는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출시 때부터 ‘우리는 형제다’라는 슬로건으로 만든 ‘앞새주부라더’ 제품명이 이목을 끌면서 향토기업으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불러 일으킨 점도 인기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호남지역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다양한 제조공법을 적용해 제조 과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였다”며 “현재 대학생 등 젊은 층과 여성층에 인기가 높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해양조는 ‘앞새주부라더’의 알코올 도수가 1.5도 낮아진 만큼 도수 인하에 따른 원가절감 비용을 청년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몽구 회장, 인도 모디총리와 자동차산업 면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인도의 자동차산업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 인도 첸나이 공장은 한-인도 경제 협력의 상징”이라며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도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현대차그룹은 올해 첸나이 2개 공장에서 지난해 보다 4%가량 성장한 64만 대 생산,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중 47만대는 인도 국내에 공급하고 17만대는 세계 110여개 국가로 수출, 인도의 자동차 수출 1위 기업으로서 수출 증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현대차그룹과 인도의 자동차산업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창사 63주년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광양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대 임 직 원 일 동	광 양 상 공 회 의 소	광 양 교 육 지 원 청	여 수 광 양 항 만 공 사	광 양 시 의 원 일 동	국 회 우 의 원 근 원
----------------------------	----------------------------	---------------------------------	---------------------------------	--------------------------------------	---------------------------------	---------------------------------